

건강을 지키는 현장

어려운 이웃에게도 "건강관리"의 기회를 !!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가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추워지는 날씨 속에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주일간 실시된 이 무료 검진에서는, 시설 수용자 550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동 검진반을 이용한 순회 검진을 통해 7종목을 검사한 이번 무료검진은, 건강검사의 기회가 별로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어려운 이웃에게도 건강관리의 기회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사 및 기생충검사를 실시해 어려운 이웃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된, 건협전북지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무료 검진계획”은 전라북도 관계부서의 지원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지난 11월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 이 무료 검진에서 일정 및 검사대상 복지시설 선정 등에 많은 협조를 해주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에게
건강관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번 검사의 취지.



• 검진차량 이용해 건강검사와 상담

『이번 검진은 검진차량을 이용해 각시설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사 종목은 요당검사, 요단백검사, 심전도검사, 혈액형검사, 기생충검사, 흉부 X-선검사, B형 간염검사 등 총 7종목이었고, 검사 대상자에 대한 건강상담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전북지부 남상도 국장의 검사 실시 과정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이번 순회 검사에서 총 550여명의 복지시설 수용 장애인이 검사를 받았다.

◦ 시설 수용자 550여명. 검사 받아

이번 순회검진에서는, 날로 각박해져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 수용 장애인 550여명이 건강검사를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 검진을 받은 시설은 삼성보육원(전주시), 선덕보육원(전주시), 호성보육원(전주시), 국제 재활원(완주군) 등이다.

◦ 검사 결과 이상자에겐 치료 안내

한편 건협 전북지부는 이번 검진에 따른 결과는 각 개인에게 우편 통보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 이상자에게는 치료안내를 해줄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기생충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투약, 치료까지 해주기로 했다.

또한 대구지부는 앞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순회

건강을 지키는 현장

검진과 같은 무료 검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해 전체 국민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협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검사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웃사랑실천”에 우리 함께 나서자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추울 것이 예상된다는 올 겨울, 대통령 선거,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커다란 행사들이 우리들 눈앞에 닥쳐있지만 그러한 열띤 사회분위기의 뒷쪽에서는 여전히 사회·경제적인 소외감 속에서 이 추위를 더욱 춥게 느껴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건협 전북지부의 이번 무료검진은 어쩌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들의 활동이 따뜻하고 크게 느껴지는 것은 갈수록 “이웃사랑 실천”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까닭에서가 아닐까.

올해의 겨울만큼은,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었던 우리네 인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